

－ 해 (기호와 사유) 기말소논문 －

플라톤의 철인통치 개념에서 대권 후보를 분석하다

목차

1. 서론

대통령에게 철인 정치가 필요한 이유

2. 철인정치의 정의

3.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후보자들의 철인정치

1) 철인 통치자로서 지혜의 덕을 갖췄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다

2) 철인 정치인으로써의 이데아 인지 여부 관점을 비교하다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대통령에게 철인 정치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속 대통령은 무한한 권력을 지닌다. 박근혜 前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2016헌나1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말하면서 1)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꼬집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직접 언론기관의 수장을 친정부적인 인사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비리 혐의에 악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폐지 과정에서 청와대 - 공기업 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등의 대통령들은 가족이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비리 문제와 엮였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들은 권력을 악용해 지금까지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병폐로 꼽히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말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에 뽑는 의원 내각제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개헌이 진행된다고 해서 권력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순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에게 나눠지는 것에 그치며 총리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속한 이해관계가 동일한 인물이 내정되는 만큼 권력의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개헌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역발상으로 의원내각제를 포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어울린 인물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면 어떨까. 고대 그리스 시절 등장하던 철인정치처럼 말이다. 철인정치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유형의 군주를 의미한다. 철인은 국가의 본래 목적인 국가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현대 한국에서 지도자는 큰 존재감을 가지며 절대적인 권력을 쥔 행정부의 수반이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철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강한 지배력을 두고도 하나같이 정치인으로써 필요한 '국가의 이익과 행복 추구'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는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통령에게 진정한 철인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소논문에선 여야 대통령 후보 중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3명의 인물을 분석하고 그들이 각각 철인 통치자로서 특정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철인정치의 정의

철인정치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2) 플라톤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며 이상 국가를 만든다. 이 중 철인왕은 플라톤이 강조한 핵심요소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돼야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고, 철인왕은 그의 철학적 이론이 담긴 존재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무식한 시민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펼쳐지며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 체제에 의구심을 품고 자신이 정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형태, 통치 체제

1) 보충의견 전문 탄핵심판 결정 안창호 재판관, 한국일보, 2017.03.10

2) 김윤동, 「플라톤의 철인왕 통치」,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2011.3, 33p

를 정의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철학자이자 통치자인 철인왕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칼리폴리스’를 자신이 정의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국가로 삼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자를 철인왕으로 삼아 논리를 전개한다. 철인왕은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확고한 실재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존재는 특정한 생성과 소멸에 동요되지 않는다. 즉, 철인왕은 이데아를 아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데아는 무엇일까. 이데아는 말 그대로 최고의 존재이다. 이데아를 아는 사람은 선의 이데아와 미의 이데아를 모두 갖춘 존재이기에 세속적인 욕구에 빠지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결과 지도자는 쉽게 욕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아닌 국가를 위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게 된다.

또한, 철인정치를 펼치는 철인왕은 독재 체제에 가깝게 운영된다. 이는 플라톤이 가진 사상에 따른 운영체제다. 3) 국가는 개인보다 크겠지? 플라톤의 사상을 일축해 보여주는 국가의 한 문장이다. 플라톤은 통치 체계를 다양하게 나누고 이에 맞춰 국민들이 행동해나가며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사상을 띤 인물이다. 이에 따라 철인왕의 체제도 독재적인 면모를 띤다. 그런 만큼 철인은 언제나 초월적인 기량을 갖추 수 있어야 하며, 이데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다. 철인이 타락하거나 올바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철인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며, 뛰어난 능력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인왕이 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은 ‘지혜의 덕’이다. 지혜의 덕은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3등분하며 정의한 존재 중 하나다. 플라톤은 덕을 영혼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인간 영혼은 지적 이데아에 작용하는 이성과 물질 현상계에 작용하는 감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정의한다. 이성은 머리와 관계된 부분으로 지혜를 덕으로 삼는다. 감각은 육체에 머물러야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감각은 정욕과 기개로 나뉜다. 이 중 기개는 명예를 추구하는 데 이 과정에서 용기의 덕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지혜, 용기, 절제로 나누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능력 하나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이중 지혜의 덕에 탁월한 사람은 지성과 이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지성과 이성을 지닌 사람은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용기의 덕에 탁월한 사람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절제의 덕에 탁월한 사람은 생산자로 일하게 된다. 각각의 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한 국가 내에서 세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회는 정의롭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통치자가 지혜의 덕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좋은 대학에 나온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의되는 지혜는 분별력이다.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을 의미하며 다른 것을 배우길 좋아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철인정치는 철인이 펼치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다. 철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선 어리석고 사익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의 장기

3) 플라톤, 천병희 역, 2013.2, 국가, 도서출판 숲, 109p

비전을 만들어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철인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가 구성원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차기 대권주자 1, 2, 3위를 기록 중인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을 철인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후보자들의 철인정치

1) 철인 통치자로서 지혜의 덕을 갖췄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다

지혜의 덕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주창한 인간의 세 가지 영혼 중 하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덕으로 삼는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다. 지혜의 덕을 가지냐의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이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 지도자가 지혜의 덕을 갖췄는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먼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994년 검사로 임명된 뒤 이명박 BBK 사건 수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맡으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올랐고,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후 현재는 퇴임했다. 그는 공정함과 원칙주의자적 성격을 바탕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후보다. 이명박, 박근혜, 조국 등 여야 인사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공정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분별력면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옳고 그름을 분류하고 소신껏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혜의 덕을 확고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본래 정치인이나 행정인이 아닌 검사였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지식의 정도가 불분명하다.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으며 4) 반도체와 같은 국가 미래 산업 등을 배우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곤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얼마만큼의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는 의문인 만큼 지혜의 덕에 있어 점수가 다소 가감된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재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부임하며 성남시의 수천억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 부분에 뽑히는 등 호평받은 정치인이다. 이후 2018년부터 경기도지사 자리를 맡고 있으며 5) 2021년 6월 기준 모든 지역 단체장 중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이재명은 시원한 언변과 빠른 일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여권 대선주자 중 1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 청년소득 등의 정책으로 좌익 대중주의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재명의 경우 정치인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으로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에 실무적인 면에선 윤석열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재명은 윤석열과 반대로 지혜의 덕에 있어 분별력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6) 기본소득제를 논쟁할 때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멋대로 왜곡해 사용하는 등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이에 맞추기 위해 다른 이들의 생각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격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온 이재명의 양날의 검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해나간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철인정치에서 독자적인 철인왕으로 정책을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윤석열 “반도체 공부하고 싶다” 서울대 연구소 3시간 견학, 중앙일보, 성지원, 2021.5.20

5) [기획] 이재명 경기도지사, 5월 긍정평가 62.9% ‘선두’ 의미는?, 뉴스프리존, 2021.6.8

6) 노벨상 권위에 기댄 이재명 지사의 이상한 폐북 글, 매일경제, 지홍구, 2021.6.4

이낙연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79년 동아일보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한 후 2000년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총 3번의 국회의원과 1번의 전라남도지사 직을 맡은 후 제 45대 국무총리직을 맡은 정치인이다. 이낙연은 앞서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정인으로만 활동한 이재명과 달리 3번의 국회의원직을 통해 입법 활동도 펼친 바 있으며 7기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별력에 있어선 무조건적으로 좋은 점수나 나쁜 점수가 아닌 평균 정도의 점수다. 평소 기자 출신인 만큼 언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국무총리 재임 시절 시민들과 소통하며 권위주의를 깨는 총리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등 국민들의 정서와 크게 반감되는 행동을 하며 분별력 없는 행동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지지율을 잃으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서 3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 철인 정치인으로써의 이데아 인지 여부 관점을 비교하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인이 이데아를 인지했느냐의 여부를 중요시하게 여겼다. 철인 정치인은 이데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데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국가 정치체제에 반영해야 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철인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만 국가 체제에 선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데아는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물의 이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본질이다. 이처럼 이데아는 애매한 개념으로써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써, 정치인으로써의 이데아를 정의하면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성과 정책안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각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써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했듯이 정치인으로써의 정체성이 부족하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기 어렵다. 현재 윤석열을 대표하는 정책적 이미지는 윤석열이 보수주의자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경제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를 부친으로 두고 있다. 아버지가 경제학자인만큼 윤석열 역시 보수주의적인 자유시장경제 주의자이다.⁸⁾ 실제로 윤석열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 책으로 자유방임 경제주의자 프리드먼이 쓴 책 <선택할 자유>를 꼽은 바 있다. 또한,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며 휴전선을 사이에 둔 북한이라고 답하기도 하며 보수적인 안보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의 이데아를 정리한다면 보수 우파에 가깝다는 정의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정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결국 윤석열은 보수주의자 윤석열보다 문재인 정권 대적자 윤석열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정치인으로써의 이데아가 다소 부족하며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다른 대체 정치인이 떠오른다면 심판자로서의 윤석열은 다소 사그라들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재명은 윤석열보다 다소 확고한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를 토론회 참석, 기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소득이다. 이재명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부를 내세웠




7) 꼴찌 성적표 받고도 이낙연 지지도 오른 까닭, 오마이뉴스, 김시연, 2017.5.22

8) '시장'주의자 윤석열과 '사회'주의자 조국, 매일노동뉴스, 윤효원, 2019.9.30

고,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배분하고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외에 독자적으로 1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자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는 평등과 분배를 중요시하는 이재명의 성향이 크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진보계열 및 저소득 가구로부터 지지받는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은 둘째치고 이데아로서의 이재명은 확고하다.

이낙연은 다소 얇은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데아 면에 있어선 이재명은 물론 윤석열에게도 부족하다. 보수주의자라는 색채라도 지니고 있는 윤석열과 다르게 자신의 이념이나 방향성, 정책 등에 대해 확고하게 드러낸 적이 없으며 국무총리 재임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다소 묻혀가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레임덕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데아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이낙연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혜의 덕 (기본)	지혜의 덕 (정치)	이데아
	O	X	▲
	X	O	O
	O	▲	X

각 대통령 후보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지혜의 덕, 이데아를 바탕으로 자질을 결론내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철인 정치인으로서 세 대통령 후보를 정의내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은 대통령 (철인왕)으로써 기본적인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써 제대로 된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또한, 정책적인 면의 이데아에선 자신의 정책적인 면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러한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웠다. 이재명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분별력을 갖추는 기본적인 지혜의 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책을 성공시키고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정치인으로써의 지혜의 덕은 제대로 갖추고 있다. 또한,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며 자신의 이데아를 제대로 알린 만큼 이데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낙연은 품위 있고 현명한 언변을 통해 제대로 된 기본적인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행정 경험과 입법 경험을 갖췄지만 국민 정서에 반감되는 언행을 저지르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데아 면에 있어선 최악의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데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묻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레

임덕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이어졌다.

5. 참고문헌

김윤동. 2011.3 플라톤의 철인왕 통치

보충의견 전문 탄핵심판 결정 안창호 재판관

플라톤, 천병희 역, 2013.2, 국가, 도서출판 숲,

이상인,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철학적 기원」,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2010.03, 125